

한국지방신문협회 전국 4006명 대선 여론조사 ▶2·3면

조사결과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朴 38.5% 安 32.2% 文 23.0%

양자대결 안철수·문재인 모두 박근혜 앞서
야권단일후보 지지도 安 45.3% 文 36.6%

추석을 앞두고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지방 신문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실시한 18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지역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신협이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5%)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38.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32.2%,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3.0%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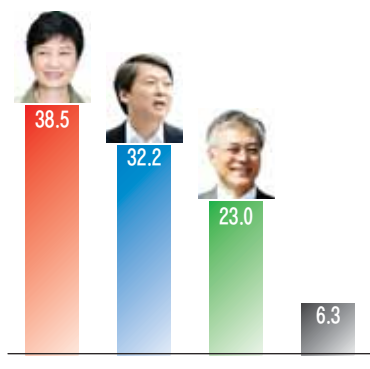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무소속의 안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가 새누리당 박 후보를 모두 앞질렀다.

안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50.1%의 지지율로 42.6%를 얻는데 그친 박 후보를 7.5%포인트 차이로 앞섰으며, 문 후보는 47.0%의 지지율로 45.5%의 박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야권단일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5.3%, 문재인 후보가 36.6%를 얻었고, 무응답은 18.0%였다.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 선호도에서는 '국민 경선+여론조사'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국민경선' 20.1%, '합의 답안' 19%, '여론조

■대선후보 지지도



사'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266명)를 따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가 42.9%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문재인 민주통합

당 후보 39.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3.9%를 기록했다.

야권 단일후보 지지도에서는 문 후보가 44.7%, 안 후보가 42.9%로 치열한 접합 양상을 보였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유권자(416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문 후보는 41.6%, 안 후보가 39.9%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새누리당의 박 후보는 12.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보여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거의 따라잡거나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8.8%, 민주통합당 28.4%, 통합진보당 1.3% 순으로 조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석을 사흘 앞둔 27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에서 공남섭(73세) 가족들이 웃음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힐링 한가위’...치유의 힘, 가족

▶관련기사 11·12면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전국민이 치를 떨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3건꼴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못지마 살인’, ‘절망살인’ 등 사회 구성원을 무차별 공격하는 범죄는 손꼽기 민망할 정도다.

전문가들이 각종 범죄를 사회병

리 현상으로 진단하고 백가쟁명식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이들의 약방문을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복원’이다. 따지고 보면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가족의 붕괴와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이 작동하지 않는 토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기형이다.

그럼에도, 가족해체는 더욱 가팔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하루 평균 19쌍이 이혼하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나날로 가까우

가정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1인 가정의 ‘고독사’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아울러 치유하기 위해서 무너진 가족관계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팍팍한 삶에서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치유받고 새 삶을 얻는 희망의 공간, 새 삶을 열어주는 보금자리를 다시 살려내자는 것이다.

/윤영민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주선 벌금 80만원 석방

유태명 전 동구청장 징유

국회의 체포 동의 끝에 법정구속된 광주시 동구 박주선(63·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 등 동구 불법선거운동 관련자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넘어선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된 뒤 치러진 재판에서도 사실상

무죄나 다름 없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곧 석방됐다.

당내 불법경선운동에 관여하고 최대 수배를 받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공모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만 인정됐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시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최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향 앞으로... 한가위 3000만명 대이동

대명절인 추석(30)을 사흘 앞둔 27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날 광주·전남 일부 국도 주변과 국립 5·18 국립묘지 등에는 일찍 성묘를 마치려는 성묘객들의 차량으로 붐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추석연휴 기간(28일~10월3일) 귀성·귀경 예상 이 동인원이 전국적으로 모두 2925만명 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귀성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 교통량이 집중되고, 귀경은 개천절까지

이어져 다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이 기간 전국적으로 평균 374만대, 추석 당일 최대 46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권 이용차량은 평균 45만 6000대, 추석 당일 최대 56만3000대로 전망된다. 이 기간 광주영업소는 33만3000대, 동광주영업소는 32만 9000대의 차량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구간 귀성 최대소요예상시간

은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7시간30분, 귀경은 광주~서울 6시간40분, 목포~서서울 7시간20분이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귀성은 28일 새벽 6시~29일 오후 8시, 귀경은 30일 정오~다음달 1일 새벽 2시와 다음달 1일 오전 10시~같은 달 2일 새벽 2시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문흥~동광주 구간은 성묘차량과 귀경차량이 뒤섞여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날짜	날씨	기온
28(금)	흐림	17/25
29(토)	구름 많음	15/23
30(일)	구름 많음	14/24
10/1(월)	구름 많음	14/25
2(화)	구름 많음	15/25

◆29·30·1·2일자 신문 쉽니다

<추석 특집 지면 안내>

대선 여론조사.....2·3면	연휴 가볼만한 곳.....15면
대선후보 집중분석...4·5면	F1의 모든 것.....16면
가족이 힐링이다.....11면	나로호 3차 발사.....17면
가족 스토리.....12면	한가위 극장가.....21면
한가위 문화나들이.....14면	TV 프로그램.....23·24·25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2012 국제농업박람회

10.5(금)~29(월) 25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나주시 산포면)

2012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산물, 축산물, 농기자재와 친환경농업, 농촌문화, 농업 자원을 전시, 판매하는 농업관련 종합축제의 장입니다.

www.2012iae.com http://facebook.com/2012iae

생명농업의 장

- 생명농업관
- 농업미래관
- 농업예술관
- 유기농업관

농식품산업의 장

- 농산물전시판매관
- 농기계전시판매관
- 축산관

국제교류의 장

- 기업홍보관
- 국제회의관

농업 어메니티 장

- 에듀팜
- 농산물 수확체험장

주관 (재)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주최 전라남도 | **후원**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 (061) 330-2699